2025학년도 2학기 문헌연구보고서

유용성 추구를 넘어 양심과 책임을 통해 정직함에 도달하는 창조적 삶에 대한 가치 고찰

이름	박*하
전공	AI빅데이터융합경영학과
학번	2025****

1. 들어가며

2번의 대학교 입시를 치르며 과정이 아닌 점수로만 노력을 인정받는 잔인함을 뼈아프게 경험해보았다. 대학에 와서도 학생들은 주로 얼마나 효과적인 성과를 냈는지에 따라 평가받고, 이는 사회에 나가서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현대사회의 세태가 완전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세계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계속해서 이뤄왔다. 우리는 인류역사상 가장 부유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자본주의가 유용성을 중심으로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내는데 집중한 덕분에 가능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주의의 극단적 유용성 추구는 모든 것을 효율성의 잣대로만 평가하여 인간의 존엄성이나 도덕적 가치는 경시하였다. 이처럼 수치화할 수 없는 무형의 것들은 무시해버리는 현재 세태는 인간마저 물질처럼 수단화시켜버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자본의 유무가 계급을 결정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자 사람들은 오직 물질적 부를 가지기 위해 모든 것을 수단으로 전락시켰고 이에 따라 자기 자신마저 타인에게 그저 효과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 쓰이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다. 인간은 잘 살아가기 위해 유용성을 추구했지만, 이는 결국 성과에만 골몰하여 그 인간이 살아가는 삶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모순을 가져왔다.

목적을 잃은 채 결과만을 바라보는 공허한 삶은 쓸모를 다한 뒤 가차없이 버려지는 기계와 다를 바 없다. 특히 최근 눈에 띄게 발전 중인 AI 기술은 인간보다 더 높은 결과의 효율성을 보장하면서 인간 고유의 가치에 대한 물음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떤 인성적 가치를 중시해야 자신의 삶이 목적으로서 내면화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극단적인 유용성 추구가 현대 사회에 유발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렇다면 인간이 유용성을 넘어 추구해야 할 인성적 가치는 무엇인지와 그 필요성에 대해 논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칸트 윤리 사상의 의미와 현대적 의의」, 「공감은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가? : 쇼펜하우어의 '공감(Mitleid) 윤리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 「니체철학에서 책임의 문제」와 같은 저명한 선행연구들을 참조할 예정이다.

본 논문의 2~4장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선행연구를 토대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칸트와 쇼펜하우어, 그리고 니체의 철학사상을 종합하여 유용성 추구의 대안이 되어주는 인성적 가치의 중요성을 심도깊게 설명한다. 먼저 2장은 유용성에 집착하는 태도가 초래하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인간성의 상실과 관련지어 제시할 것이다. 나아가 유용성 대신 책임이라는 가치를 추구해야만 하는 이유를 쇼펜하우어의 공감주의 윤리학에 기반하여 논증할 예정이다. 3장에서는 양심이 왜 2장에서 설명한 책임과 함께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가치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칸트 윤리학의 핵심인 의무론을 근거로 들어 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장은 인간이 최종적

으로 도달해야 할 인성적 가치가 앞서 설명했던 책임과 양심에 기반한 정직인 이유를 니체의 창조적 삶을 기반으로 논증할 것이다.

2.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유용성의 결정적 한계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책임이라는 가치

결과가 곧 성과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이 유용성을 인생의 가치로 두는 것은 분명히 득이 된다. 유용성은 어떻게 하면 가장 큰 이득이 될까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저 눈 앞의 이익에만 매몰되어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타인과 자신을 모두 수단으로만 전락시켜버린다. [1]칸트에 따르면 사물은 상대적인 시장가치로 환원될 수 있으나 인격이나 인간성은 가격으로 치환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 즉 존엄을 지닌다. 인간은 '자연의 목적'이고, 언제나 다양한 목적을 만들어내는 주체인 인간성은 '목적 자체'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늘 타인을 수단으로 이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인격을 사물로 대하거나 수단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유용성만을 추구할 시에 우리는 타인을 수단으로만 취급하게 되고, 따라서 자신 역시 타인에게 수단으로만 존재하게 되므로 각자의 삶이 목적으로서 내면화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이자 목적 그 자체인 인간성을 폄훼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유용성을 넘어서는 인생의 가치를 역설하고,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삶에서 추구해야 할 유용성을 뛰어넘는 가치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정직이라는 인성적 가치이다. 정직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바탕이 되어주는 책임과 양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책임과 양심, 그리고 정직은 별개의 요소들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얽혀 있으며 연쇄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책임이란 공감을 행동으로 옮기고, 타인의 아픔에 귀 기울이며 함께 짊어지는 태도이다. 이는 단순한 공감이 아니라 서로의 고통을 이어주는 힘이기에 자신과 타인을 모두 고려하게 만들어 인간성의 훼손을 막을 수 있다. [2]칸트주의 윤리학을 계승한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 본성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행위는 이기주의, 악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라는 3가지 요소에서 비롯된다. 이 때 이기주의는 자신의 행복을, 악의는 타인의 고통을, 마지막으로 고통에 대한 공감은 타인의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 "누구도 해치지 마라. 오히려 네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이를 도우라!"라는 쇼펜하우어의 말은 그의 윤리학을

---

[1] 정대성,「칸트 윤리 사상의 의미와 현대적 의의」,『윤리연구』제142권 제1호, 한국윤리학회, 2023, 224쪽.

[2] 소병일,「공감은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가? : 쇼펜하우어의 '공감(Mitleid) 윤리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철학』제124호, 한국철학회, 2015, 51-52쪽.

집약적으로 나타낸다. 즉 이기주의와 특히 악의를 기반으로 한 행위는 비도덕적이며 오직 고통에 대한 공감에 따라 타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만이 도덕적인 것이다. 정리해보면 모든 고통의 근원은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이기주의는 공감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이처럼 타인의 고통을 배려하고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쇼펜하우어의 윤리학은 유용성이 본인의 행복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개인적, 사회적 문제점들을 유발하고 이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책임감을 발휘해야만 극복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3. 책임과 함께 정직의 필수요소로 작용하는 양심이 지켜내는 인간의 본질적 가치

[3]칸트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불완전한 의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타인을 돕는 것이고, 타인에 대한 완전한 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고통 속에 놓인 타인을 도와야 한다는 의무는 앞서 설명했듯이 책임을 통해 이행된다. 지금부터는 타인에 대한 완전한 의무를 실현 가능하게 하면서 책임과 함께 정직의 핵심 요소로 기능하는 양심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자, 자신의 행동을 비판하고 반성하는 마음이다. 인간이 이러한 양심을 바탕으로 행동한다면 거짓말을 함으로써 타인의 인격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비도덕적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양심을 지닌 인간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남을 속이는 과정에서 소위 '양심의 가책'이라고 불리는 죄책감이나 불편함을 통해 그것이 비도덕적 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자신이 갚지 못할 걸 알면서도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 약속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만약 유용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다는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기에 올바른 행위이다. 그러나 양심에 기반했을 때 위의 예시는 돈이라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의 인격을 수단으로만 전락시켜버렸으므로 결코 옳지 않다. 이처럼 양심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인 인간은 내면의 양심에 따라 행위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완전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고, 나아가 인간의 본질적 가치 역시 지켜낼 수 있게 된다.

4. 인간이 추구해야 할 인성적 가치의 도착점인 정직이 이뤄내는 창조적 삶

책임과 양심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마침내 정직성으로 귀결된다. 정직성이란 진실되고 일관적인 태도로 자신과 타인에게 거짓이나 속임수 없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4]니체는 칸트의 도덕철학과 관련된 글에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하는 경솔한 사람들과 약속을 하

---

[3] 정대성, 앞의 글, 226-227쪽.

[4] 양대종,「니체철학에서 책임의 문제」,『철학연구』제139권, 대한철학회, 2016, 118쪽.

는 그 순간에 이미 약속을 깨버리는 거짓말쟁이들을 강하게 비판한다. 그는 자신이 말하는 바를 진실하게 믿으며 자신이 약속하는 바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바람직한 인간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인간이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는 책임과 양심을 통해 도달 가능한 정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직하게 사는 것에 대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대체 어떤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정직한 사람의 인생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순결하고 고귀한 삶이지만, 그러한 삶은 남을 위해 수많은 것을 희생한 삶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 [5]정직은 우리 자신이 각자 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가치이다. 니체에 의하면 잘 사는 것이란 창조적 삶을 의미하며, 이는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삶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만약 정직하지 않은 태도가 계속된다면 자신의 인생에 가식과 불신이 가득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 회의감에 휩싸이게 된다. 거짓말을 하는 순간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타인의 평가에 종속된 노예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체적으로 가치를 만드는 '창조적 삶'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의 잘 사는 삶은 우리들의 목표 그 자체이고, 정직은 그 개인 자신이 잘 살아가는 데 있어 훌륭한 도구인 것이다. 따라서 정직은 단지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중요 가치이다.

5. 나가며

현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일어나는 유용성의 극단적 추구는 인간마저 수단으로 전락시키면서 인간성의 상실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 각자의 삶이 목적으로서 내면화되지 못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인간지능에 버금가는 인공지능이 출현한 현재 자신의 본질적이고 고유한 가치를 지켜내지 못한 인간은 그 위치를 위협받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이 계속된다면 인간은 더 이상 각자의 의미있는 삶을 영위하지 못할 것이며 기계와 동일시되거나 혹은 오히려 지능을 가진 기계에게 지배당하는 존재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익에만 눈이 멀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도덕적 가치를 무시하는 대신 인간성을 지켜내면서 개인의 풍요로운 삶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인성적 가치의 추구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이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얼마나 효과적인가'만을 평가의 잣대로 삼는 유용성 추구의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나아가 책임과 양심에 기반한 정직이 유용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간의 본질적 가치와 고유성을 지켜내고 창조적 삶을 가능하게 함을 역설함으로써 유용성 대신 정직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와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유용성

[5] 김효섭, 「"정직(Redlichkeit)"에 관한 니체의 윤리학적 고찰」, 『철학연구』제139권, 대한철학회, 2016, 65-68쪽.

의 추구가 인간성을 앗아가는 이유를 칸트의 정언명령을 통해 설명하였다. 또한 책임이라는 가치는 자신의 행복만을 고려하는 이기주의를 넘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쇼펜하우어의 공감 윤리학에 기반하여 그 타당성을 논증하였다. 뿐만 아니라 책임과 상호작용하며 정직을 구성하는 양심은 칸트의 철학 사상에서 구분한 불완전한 의무와 완전한 의무의 이행을 토대로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인성적 가치가 왜 책임과 양심에 기반한 정직인가에 대해서는 니체가 주장한 바람직한 인간상과 창조적 삶을 근거로 들어 논증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칸트, 쇼펜하우어, 니체의 사상을 종합하여 인간이 추구해야 할 인성적 가치인 정직에 관해 깊이있게 설명하고 논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앞서 진행되었던 선행연구와 달리 특별히 3가지 지점을 통찰하였다. 먼저 쇼펜하우어의 감성주의 철학과 칸트의 이성주의 철학을 연관지어 책임과 양심이라는 가치가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인간성의 상실을 막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구분되는 두 철학사상을 긴밀하게 관련지어 유용성 대신 추구해야 할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정직이라는 가치를 단지 도덕적 가치로 규정하지 않고 개인의 창조적 삶을 이룩하게 하는 중요 가치임을 피력하였다. 앞선 연구들에서는 정직이 도덕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만 주목하였지만, 본 논문은 이를 넘어 개인이 잘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정직이 필수불가결한 가치임을 논증하였다. 이는 정직이 인간의 삶에 줄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을 통찰하여 인간이 추구해야 할 인성적 가치는 유용성이 아닌 정직임을 완벽하게 뒷받침하였다. 마지막으로 칸트와 쇼펜하우어, 니체의 철학사상을 통해 인간이 추구해야 할 인성적 가치를 설명함으로써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토론하는 윤리적 가치가 새롭게 활용될 수 있는 국면을 열었다. 무엇이 가장 유용한가에 대해 초점을 맞춘 현재 윤리적 가치에 대해 논하는 철학 사상들의 위치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해당 논문에서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왜 정직인지에 대해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칸트주의와 칸트의 철학사상을 계승하면서도 자신만의 고유한 사상을 가미한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윤리학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설명하는 철학 사상들이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어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철학적 사상과 이론에 기반해서만 책임과 양심을 통한 정직을 설명하였다. 인성적 가치의 의의는 실제 사회에서의 경험을 통해 입증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 행하지 못한 설문조사와 같은 실증적 연구들은 후속연구로 완성될 것을 기대한다. 유용성 추구로 인해 인간은 왜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 없이 결과에만 집착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의미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양심과 책임을 통한 정직을 추구해야 함이 분명하다.